

호남신학대학교, 2025년 추계 신앙사경회 성료

채영남 목사, 박재용 목사, 오상영 목사 강사 초청

2025년 2학기 개강을 맞아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황민호)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추계 신앙사경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사경회는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예비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사경회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다른 주제로 깊이 있는 말씀이 선포됐다.

첫째 날에는 중경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너는 복이 될지라.”(창세기 12:1-3)를 주제로, 둘째 날에는 웅포교회 박재용 목사가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빌립보서 2:5-11)를 주

로 각각 설교했다. 마지막 날에는 천보교회 오상영목사가 “예수님의 길을 가다.”(요한복음 14:5-7)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다.

참석한 재학생들은 현장 목회 경험이 풍부한 선배 목회자들의 생생한 간증과 신앙 경륜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사경회에는 적극적인 후원이 이어졌다. 본향교회(담임 채영남 목사, 중경총회장)와 웅포교회(담임 박재용 목사)는 사경회 기간 중 교직원과 재학생들을 위한 점심을 제공해 따뜻한 섬김을 실천했다.

특히 웅포교회는 호남신학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강정남 집사도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발전기

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됐다.

사경회 기간 중에는 호남신학대 교회음악과 성악 교수진이 특송 순서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여 참

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호남신학대교 황민호 총장은 “이번 추계 신앙사경회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신학대학교 추계 신앙사경회 첫째 날 중경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박주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용연학교’의 출발지는 광주시 동구 지원동이다. 지원동 바로 위 무등산 자락에는 광주 제2수원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용연 정수장이 있다. 용연학교의 이름은 여기에서 기인했다. 맑은 물에 용이 노닐 듯 이 학교에 와서 마음 편히 지내다가 승천하는 용처럼 원래 다니던 원적 학교로 잘 복교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관교실을 몇 년간 운영해 본 결과는 매우 좋았다. 학생은 물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금관교실은 1주일 단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선도위원회의 특별교육 조치를 이수하는 데에는 적합했으나 여러 요인으로 장기간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나 퇴학 제도가 없다. 학교에서 비행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이른바

등이 주축이 된 100인들이다.

박희성 이연주 강구 강인숙 국운배 기서 김진중 김광표 김금화 김내섭 김돈희 김두현 김병태 김상진 김서형 김승영 김정인 김정호 김종근 김종섭 김진구 김해영 김한수 김형남 김형문 김형태 김혜경 김홍식 김희무 나정식 노해두 문갑동 문영아 문병희 문영순 문종섭 박근현 박송재 박용정 박주정 박준수 배정설 손성호 양동만 양정기 오경미 오세희 오학기 유수연 이금 이경옥 이상규 이승대 이승우 이정태 이종식 임형 임주형 임채원 장호장귀동 장금만 정석기 정영호 정환운 조중현 차경남 천병석 김철구 최봉민최은길 한정희 함교석 홍명희 홍상희 홍석진 홍옥희 정종호 이재현 박봉식 김현수 정현자 권철환 임수준 신미숙 박준금 김순자 정준희 한문노 김대강 임정하 배원표 변해진 윤길준 김용환 박미란 이혜숙 이재숙 김혜정 조경옥

-용연학교 개교에 헌신한 선생님 100인

The1904아카데미 제7기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서현교회 미라클홀

“유진벨에서 허철선까지 양림동에서 배우는 광주정신”을 캐치프레이즈로 The1904아카데미 제7기 강좌가 9월 15일(월)부터 10월 20일(월)까지 총 5주



일정으로 열린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광주서현교회 미라클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제7기 강좌는 ▲제1강(9.15) 통일을 여는 하나님의 ‘좁은문’, 교회개혁 /김정태 목사 ▲제2강(9.22) 회년정의와 의향 광주, 통일 체제 /박창수 목사 ▲제3강(9.29) 호남에서 평양으로, 윌리엄 레널즈와 유진벨 가문의 북한선교와 통일 유산/이재근 목사 ▲제4강(10.13) 하나님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통일 준비 /전득안 목사 ▲제5강(10.20) 5.18광주정신, 화해와 통일의 길에서다 /박상규 목사 순으로 총 5주동안 진행된다.

강좌와 더불어 9월 28일(주일)에는 유진벨 통일순례길(양림동 선교사 묘역) 탐방과 10월 18일(토)에는 고려인 통일순례길(월곡동 고려인마을) 탐방도 진행된다.

The1904아카데미가 주최, 주관하며 회비는 5만 원(청년 우대, 순례길 별도)이다.

문의: 010-3618-0952

“남한에 갇힌 평양시민” 김련희씨 초청 그림자꽃 상영회 20일(토) 오후4시 고백교회

평양아름다 김련희 씨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림자꽃 상영회 김련희씨 초청 간담회가 오는 9월 20일(토) 오후 4시 광주고백교회 본당(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44번길 4)에서 열린다.

1부, 그림자꽃 영화 상영(1시간 30분), 2부 김련희 씨 초청 간담회(30분)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그림자꽃 상영회’는 광주고백교회가 주관하고 김련희순환추진위원회가 주최해서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고백교회는 그림자꽃 무료상영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010-8945-4195



용연학교-국내 최초 대안교육 위탁학교

‘강제 전학’이 가장 강한 처벌이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쉽게 받아주려고 하겠는가. 교육자로서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없는 고단의 현실인 것이다.

재직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게 할 수 없고, 교육환경을 바꿔주고 내린 교육적 조치이지만 이런 학생의 정착을 반겨줄 학교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부작을 학생이 누락되고 중도탈락 학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게 된다. 매년 중학생 200여 명이 학교를 중퇴하고, 부작을 학생이 900여 명에 이르는 현실이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3월 또다른 결단을 내렸다. ‘교실’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했다. 뒷분들에게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돌아오는 순위는 항상 밀렸다. 진학을, 영재교육, 특수시책 등등이 우선이어서 교육청이라는 공교육 틀에서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한 어떤 조직을 단시일 내에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공적통(公制通)의 방법이 광주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특별선도위원, 금관교실의 추수지도위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광주학생생활지도연구회원

이렇게 출범한 사단법인 ‘광주청소년교육원’은 우리나라 근대교육사에 현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위탁대안학교를 만든 첫사례이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소였다. 교육청 소속의 건물이나 기관은 물론이고 종교단체, 회사 폐건물 등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으나 몇 년 사용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임대하기가 어려웠고 비용도 큰 문제였다.

2008년 6월로 접어들 무렵 지원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다. 1997년 폐교되어 10년 이상 방치된 학교였다. 잡초가 운동장을 뒤덮고 나무들은 정글이었다. 건물 배대를 빼고는 썩고 무너져 내렸다. 벽이든 바닥이든 만지면 부서지고 땀, 박쥐, 지네가 우글거렸다. 그래도 교육청 자산이기에 무료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임대료 연 4천만 원. 우리는 또 절망했다. 하지만 간절한 열원이었기에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 협조를 받았고, 소문이 퍼져 독자들이 나타났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블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